

문화광장



홍정호 작곡가

올해는 탐라관악합주단이 창단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2년의 일이다. 도두동 소재의 영진옥 아원 강당으로 창단연주회 준비를 위해 청년 단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알프레드 리드의 A Festival Prelude의 웅장한 사운드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공간을 채우고 창문에 매달린 호기심 가득한 어린이의 눈망울과 마음은 신세계로 가득 채웠다.

이선문. 혁신의 이름이요, 개혁자의 이름이다. 제주예술이 살아 있는 한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이선문 75 25 그리고 40

1947년 생으로 올해 탄생 75주년이며 그가 타계한 지는 25주년이다. 이는 해이다.

1981년 제주에 최초의 음악전문 교육기관인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가 설치됐다. 음악교육과 설치에는 많은 음악교육자와 전공자를 배출해 제주음악예술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관악활동의 범위를 고등학교 관악대 중심에서 전공자 중심으로 옮겨 이후 전문공연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1982년 이선문 교수와 강경수·김성주·김재용·고동익·고보윤·허성훈·김성훈·황경수 등 대학생을 중심으로 42인 편성의 전문 관악단체인 탐라관악합주단이 창단됐다. 창단 3년 후 제주시립합주단으로 새롭게 창단됐으며 1987년 편성을 재정비해 제주시립교향악단으로 발돋움했다. 후에는 현재의 제주도

립교향악단이 됐다. 제주해변공연장 역시 그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제주국제관악제 사무실에서 이상철 위원장과 많은 의견을 나누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예술은 이상의 구현이다. 그는 그렇게 성장과 혁신의 과정을 구현해 냈다.

이선문 지휘자에게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아이덴티티였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음악을 하고 있는지, 개인의 삶과 단체 그리고 제주음악가로서 최고 수준의 자아실현 이상을 요구했다. 제주를 대표하는 음악가로서 정체성을 가지길 요구했다.

두 번째는 포용력이다. 탐라관악합주단, 제주시립합주단, 제주시립교향악단을 거치며 그는 지역과 나 이 그리고 전공을 떠나 오케스트라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많은 사람을 만났으며 많은 인재를 포용했

다. 이 포용력은 공동체의 동기부여, 정체성, 방향성을 이끄는 중요한 그의 마인드였다.

세 번째는 인류애이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긍휼함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음악 안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꿈을 함께 나누며 실천했다. 그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 줬으며 진심된 충고와 조언을 해줬던 분이다.

제주관악의 현장에서 교육과 공연을 담당하는 제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 드리고 싶다. 이선문 선생의 혁신 DNA를 이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과제는 그분의 정신을 재검토하는 것이며 활동에 대한 자료수집같은 아카이브 활동이다.

5년 후 부족함 없는 이선문 선생의 80·30주년을 기대한다.

사설

‘트윈데믹’에 안전한 겨울나기 준비상

제주가 최근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동시 급증으로 우려를 더하는 ‘트윈데믹’ 현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초 300명대였다가 7일 이후 500~600명대로 확 늘었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환자도 뚜렷한 증가세다. 지역사회가 2개 질병 동시 유행을 알리는 ‘트윈데믹’ 본격화 단계라는 평가여서 도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초비상’이다.

최근 고열과 기침 등 증상을 보이는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발생주이를 보면 매우 높다. 도내 올해 50주(12월 4~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유행기준(4.9명)의 무려 12배를 넘긴 63.3명을 기록, 49주에 이어 다시 최고치를 보였다. 제주가 올해 45~49주 기간 동안 계속 증가세였다가 50주에는 전국 환자 분율의 2배를 넘을 만큼

확산세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덩달아 증가세다. 이달 6일까지 300명대 선에 머물다 7일 이후부터 500~600명대를 넘는 확진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고령 확진자 2명이 이달 사망했고, 위중증환자도 4명으로 늘었다.

지역사회 ‘트윈데믹’ 심화는 고령층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도민들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최대 위협 요인이다. 도민들은 계절 독감과 코로나19 재유행·확산을 막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도정선 사안별 철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도민 모두가 빠르게 퍼지는 ‘트윈데믹’에 맞서 예방접종 동참,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적극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때다. 안전한 겨울나기가 도민 각자 ‘어깨’에 달렸다는 인식도 절실하다.

침체 늪에 빠져드는 주택시장 대책 없나

제주지역 주택시장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한겨울 날씨가 아니라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달렸던 외지인의 주택 매수세가 한산하고 분양시장에 한파가 덮치는 등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도내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전국에 비하면 여전히 비싼 편이어서 주택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우선 도심 이외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통에 36세대를 분양하는 빌라드 아파트제주는 이달 12~13일 1·2순위 청약에 단 2명이 접수했다. 이달 5~6일 제주도 애월지역에서 136세대를 분양한 엘리프애월은 16명 신청에 그쳤다. 외지인들이 도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올들

어 10월까지 도내 주택매매거래량 7458호 중 외지인이 사들인 주택은 2060호로 27.6%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28.7%에 달했던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중이 10월, 11월에는 23.7%, 22.3%로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도내 주택시장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점점 하락하는 양상이다. 특히 주택거래가 싸늘해지면서 미분양 주택도 쌓이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총 1722세대다. 전달보다 32.6%(423세대)나 늘어난 것이다. 주거시설 경매시장도 마찬가지다. 단기간에 금리가 치솟으면서 경매시장의 주택매수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열린마당

119안심콜 서비스 선택이 아닌 필수



강기수 남원소방서 119센터

119안심콜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19안심콜 서비스란 응급 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사전 등록된 환자의 정보(병력, 복용 약물 등)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한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119안심콜의 경우 유병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119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등록된 보호자에게 문자가 전송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해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다.

119안전신고센터 (http://u119.nfa.go.kr) 접속 → 119안심콜 서비스 선택 → 안심콜 서비스 신청 선택 → 가입 구분(수혜자 또는 대리인) 선택 및 약관 동의 → 개인정보 등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19안심콜은 위와 같이 쉽게 가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한번 등록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고의 경우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고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통해 혹시 모른 위험이나 위기를 대비할 수 있다. 119안심콜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119안심콜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이 가입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조직개편·정리추경 후속조치 만전

“사람·시간 중심의 전환”

○...오영훈 제주지사가 19일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이번 주 조직개편과 정리추경 의회심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

오 지사는 “예산안 편성과 심의, 의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으며 “민선8기 도정의 기초와 방향을 반영해 예산 편성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대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8기 핵심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특히 시설과 공간 중심에서 사람과 시간 중심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사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당부, 고대목기자

“제주목 관아 도민 가까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제주목 관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

19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올해 2개월(5·10월) 진행됐던 야간개장 행사를 내년 6개월(5~10월)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 제주북초 인근 영주관 객사 터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2024년까지)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등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한편 제주목 관아는 올해 관람객이 6만1565명(12월 12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 4만3860명 대비 40.3% 증가했으며, 외국인 관람객도 늘어(지난해 말 961명 올해 2387명)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 오은지기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을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농공단지 토지 구합니다
면적 1,000평 이상 (시설물 있어도 무관함)
지역 제주도 내의 모든 농공단지
연락처 064-746-7100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북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제보정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국제보정기(국제보정기 4층)
한라제약관, 인사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정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자료 찾어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주소창 ☎010-7305-7819 제주토박이